

2021년 8월 시청자위원회 운영실적

방송국명 : 주식회사 연합뉴스티브이

1. 회의개최

일 시	장 소	참석인원 수		비 고
		위 원	방송국	
8. 24. 15시	화상회의	10명/10명	2명	

- 시청자위원 불참자(0명) 명단
- 방송사 주요참석자 명단 : 이정내(시청자센터장)
유경수(보도부국장)

2. 심의결과 및 조치현황

가. 의견제시(시정요구) 및 시청자권익보호 등의 논의 안건(건수)

방송 편성	방송프로그램					자체 심의규정	시청자권익 보호 (침해구제)	합계
	보도	교양	연예·오락 (스포츠)	기타	소계			
-	10	-	-	-	10	-	-	10

나. 사업자 반영(건수)

구 분	수 용	의견참고	반 론	합계
건 수	10	-	-	10

다. 의견제시(시정요구)에 대한 조치내용

구 분	의견제시(시정요구)내용	조치내용	제시 월
계	2건	2건	
보도	연합뉴스TV 홈페이지(PC)나 휴대전화 앱에서 '김경수'를 검색하면 관련 기사가 하나도 검색이 안 되었습니다. 너무 이상해서 포털에서 '연합뉴스TV 김경수'를 검색해보니 <김경수 '댓글 조작' 유죄...대법, 징역 2년 확정> <'공모 없다' 주장했지만...'댓글조작 목인' 인정> 2개 정도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기사 검색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연합뉴스TV 홈페이지(PC)나 휴대전화 앱에서 '김경수'를 검색하면 위 기사들은 검색이 아예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심지어 기사를 쓴 기자의 이름으로 검색을 해도 해당 기사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독자들이 홈페이지에서 최신 핫이슈를 검색하는데 전혀 연관성이 없는 기사가 검색되거나, 작년 기사가 상단에 검색되는 건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시스템 개선을 건의합니다.(김세한위원)	홈페이지 개선 계획으로 검색엔진 검색품질 개선을 위한 제반작업이 진행중이었습니다. 7월 초 비정상적 검색어의 다량 유입 등으로 속도 저하 등 검색엔진 장애가 발생했습니다. 장애 원인을 원천 차단하고 검색품질 개선 작업을 동시에 했습니다. 주요 작업 내용은 검색 색인 방식 변경, 최신 기사 색인 반영 시간 축소, 검색어 유입 필터링, 검색결과 최신 정보 순 나열 로직 변경 등입니다. 이 작업은 7월 말~8월 초 1주일간 진행했고 현재 개선을 완료했습니다. <21.8월 조치>	'21.7월
보도	TV뉴스에서 영상은 가장 중요한 언어이다. 특히 영상이 촬영된 시점은 또 하나의 중요한 메시지이다. 뉴스에서 현실적인 이유로 자료화면을 많이 쓰고 있다. 그러나 자료화면을 사용하면 '자료화면'이라는 자막을 내보내는 경우가 거의 없다. 패널들의 좌담이 아닌 적어도 실시간 뉴스에서는 새로운 영상화면이 아닐 경우에 '자료화면'이라는 자막을 내보내는 것이 뉴스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높일 것이다.(권혁남위원장)	TV뉴스에서 자료화면의 사용은 관련된 자료가 있을 경우 사용하며 시청자가 왜곡, 오인할 소지가 있는 자료화면은 원칙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료화면 사용 시 현재 시점에 촬영한 영상으로 시청자가 착각할 수 있는 영상은 '자료화면' 자막을 화면상에 노출합니다. 영상의 사실성과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으며 관련부서에 한번 더 교육을 시행해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21.8월 조치>	'21.7월

라. 시청자 권익보호 및 침해구제 ‘해당사항 없음’

안 건 내 용	조치(개선)내용	비고
-	-	

3. 기타사항

가. 시청자위원회 관련 공개 청구 ‘해당사항 없음’

요청자(단체)	공개내용	공개방법

나. 상시의견수렴 실적 ‘해당사항 없음’

상시의견수렴방법	내용

당월 시청자위원회의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내용에 대한 답변

구 분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내용	답변내용	비 고		
			수용	참고	반론
보도	연합뉴스TV의 대표적인 시사토크쇼를 만들어야 한다. 오는 12월 1일이면 연합뉴스TV가 보도채널로 출범한 지 만 10주년을 맞이한다. 10년의 기간 동안 연합뉴스TV하면 딱 떠오르는 킬러 콘텐츠가 없다는 점이 매우 아쉽다. 내년 3월 9일 대통령선거, 6월 1일 지방선거 등 국가 최고의 정치이벤트들을 앞두고 이미 정치권에서는 요동치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 유명인사(정치인, 언론인, 연예인 등)가 출연하는 인포테인먼트 프로그램(재미와 정보가 담긴 프로)인 시사토크쇼를 론칭시켰으면 한다. 시사평론가들이 출연하는 10개의 B급 시사대담프로보다는 쟁쟁한 화제의 인물들이 출연하는 단 하나의 A급 시사토크쇼의 임팩트가 훨씬 크다 하겠다. 창립 10주년을 맞이하는 연합뉴스TV는 이제 양보다는 질 위주의 보도프로그램 제작으로 바뀌어야 한다. 그저 그런 프로그램들로 하루 24시간을 양적으로 때우는 것으로 의무를 다했다고 만족해서는 안 된다. 이제는 연합뉴스TV만의 양질의 보도프로그램 제작에 힘써야 할 때가 되었다. (권혁남위원장)	대표적인 시사토크쇼가 없다는 지적은 따끔하게 받아들이겠습니다. 회사 나름대로는 오전 <뉴스포커스>, 오후 <뉴스큐브> <뉴스1번지>를 시사-정치 대담으로 꾸려가고 있습니다. 핵심 이슈, 균형잡힌 시각, 심지어 앵커 배치에까지 신경을 쓰고 있고 각 프로그램에 맞는 코너를 운영중입니다. 유명인사를 내세우지는 않지만, <뉴스1번지>는 차장급 기자가 2년 넘게 진행중이며, <뉴스큐브>는 뉴스 속보가 많이 나오는 시간인 만큼 라이브 진행 능력이 뛰어난 아나운서를 배치해 프로그램의 특성을 살리고 있습니다. 보다 장기적 관점에서 위원님의 의견을 논의하겠습니다.	○		
보도	집값 상승이 여러 고강도 대책에도 불구하고 잡힐 줄 모르자 이에 따른 정부의 대국민 담화 발표에 대한 보도로 '집값이 최고 수준에 근접하였거나 이미 넘어서 큰 폭의 하락이 있을 수 있고' '하반기 가계부채 증가율을 상반기의 절반 이하인 3~4%로 낮추고 시장교란 행위 집중 단속' 등 정부의 경고성 담화 발표에 대하여 '서울에선 15주째 집을 사려는 사람이 팔려는 사람보다 많고 전세값 상	본 리포트는 스트레이트성 리포트로 홍남기 부총리, 은성수 당시 금융위원장 등의 시장 안정 방안 발표, 집값 고점 경고, 시장교란 행위 단속 예고를 중점적으로 전달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당연히 엄포와 경고만으론 집값이 안정될 기미는 보이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한정된 분량에 전문가들의 분석, 전망 내용을 모두 담기 힘들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지적하신 내용은 그 다음주 대담,	○		

구 분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내용	답변내용	비 고		
			수용	참고	반론
	승세가 집값을 밀어 올리는 상황에서 업포와 기존 공급계획의 반복으로 집값을 잡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라고 보도하여 다소 개괄적이고 단편적인 문제점만 지적한 것 같아 아쉬움이 듭니다. 즉, 담화 발표를 통해 '우려할 만큼의 공급 부족은 아니다'라고 하였으나 주택보급율지표, 자가소득율지표 등의 지표를 보면 수도권 공급 부족이 맞고, 집값 하락은 위기 상황이나 대량 공급 시에 나타나는 경향이 많았으나 현재는 담화 발표처럼 집값이 큰 폭의 하락이 있을지 의문입니다. 집값을 안정시킬 수 있는 구체적인 대책을 내놓는 게 먼저라고 생각되는 만큼 보도 시에 전문가들의 의견과 구체적인 대책을 어떻게 마련하여야 할 지에 대한 내용도 함께 보도되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듭니다.(박찬재부위원장)	출연, 리포트 등을 통해 충분히 소화했습니다. 추후에도 집값불안 등 관련 리포트를 제작하면서 구체적인 해법 등 전문가들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도	< 여론으로 풀어보는 정치, 이슈풀풀 > 뉴스1번지 '이슈풀풀'은 2019년 10월 4일부터 매주 방영되고 있는 한 주간의 정치이슈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 분석하는 프로그램(분량: 15분 내외)입니다. 우리나라 정치 상황이 세계 어느 나라보다ダイナミック하게 전개되고 있음을 감안해 볼 때 '이슈풀풀' 프로그램이 대선 이후에도 계속 이어지길 기대하고 희망합니다. 또한 정치이슈뿐만 아니라 경제, 교육, 과학기술, 문화 이슈 등 주요한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서도 다양한 각도의 분석을 하여 해당 분야가 좀 더 관심을 받고 개선 발전하는 데에 보탬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문해주위원)	한 주간의 정치이슈를 여론조사로 풀어보는 <이슈풀풀>은 매주 목요일 고정 코너로서 당일 오전에 나오는 따끈따끈한 NBS(4개 여론조사기관 공동 조사) 데이터를 바탕으로 이루어집니다. 더해서 월~수 사이 이슈된 여론조사도 함께 반영하고 있습니다. 보통 여론조사 업체가 데이터를 수집할 때 정국 이슈나 파생되는 현안들도 몇 가지 질문하게 되는데 제작진은 자체 회의를 통해 어떤 이슈를 다룰지 결정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정치 프로그램이라는 전제하에 다룰 수 있는 분야라면 가감 없이 선정의 폭을 넓힐 수 있도록 고민해보겠습니다. 또한 대선 정국 이후에도 활발한 여론조사 분석을 통해 시청자들의 알권리를 보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보도	8월11일 5시 46분 뉴스 확진자가 오	빠른 확진자 증가세에서 의료체계에	○		

구 분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내용	답변내용	비 고		
			수용	참고	반론
	랫동안 많이 증가함으로 인해 전국 생활 격리 시설, 남은 병상 수 및 의료진 현황에 대한 자세하고 지속적인 취재가 매우 바람직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열이 나거나 그 밖의 증상이 있을 경우, 검사를 꼭 해보시라고 하는데, 그 밖의 증상이 어떤 증상인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알려져 있는 델타 변이 증상은 젊은 연령대에서 감염 확률이 높은 편이고 음식을 섭취할 때 느끼는 미각과 냄새에 대한 후각 손실이 적어서 평소와 다른 점을 잘 못 느끼는 경우도 있고 기존 코로나 증상은 미각과 후각에 대한 손실이 큰 것과는 대조되고 있습니다. 기침, 콧물, 두통 등 감기와 비슷한 증상이 나타나서 감기로 착각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과 증상을 느끼지 못하는 경증 감염자가 있기 때문에 확산 속도가 빠르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델타변이 바이러스 증상은 발열과 함께 기침, 콧물, 두통이 유발된다는 점에서 초기에 나타나는 증상을 파악하는 것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정의식위원)	대한 중요성은 날로 커지고 있어 지속적인 취재가 필요하다는 점에 깊이 공감합니다. 현장 취재를 통해 어떤 상황인지 시청자들에게 소상히 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 잇단 변이 출현에 따른 코로나 증상 변화에 대해 시청자들에게 소상히 전달할 필요성도 함께 느끼고 있습니다. 델타 변이가 국내서 거의 지배종이 된 시점에서 앞으로 추가로 들어올 가능성이 있는 뮤 변이 등 기타 변이에 대한 해외유행 상황과 연구 동향을 기민하게 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낌없는 고견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보도	7월29일 뉴스리뷰 10대 범죄 지능사이버화...촉법소년 범죄 급증, 최근 10대들, 청소년범죄가 점점 지능화·사이버화하고 있고 특히 전체 청소년 범죄는 감소세에도 범죄를 저질러도 처벌받지 않는 만 14세 미만 촉법소년 범죄는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점을 이야기하였습니다. 청소년 범죄 행위 혹은 피해와 관련하여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고 아이들의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지만 정작 왜 아이들이 이렇게 범죄 행위에 가담하거나 피해를 당하는 연령이 낮아지고 있는지에 대한 원인을 분석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장에서 느	10대 범죄 관련해서 기획 리포트 프로그램인 '프리즘'에서 9월중에 다뤘습니다. 지적하신 내용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구 분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내용	답변내용	비 고		
			수용	참고	반론
	끼는 건 온라인을 통해 범죄자들이 아이들에게 접근하기 쉬워지면서 범죄에 가담시키거나 피해를 입히는 대상의 연령이 어려워지고 있음을 느낍니다. 과거에는 가정과 학교를 벗어나 거리의 청소년들이 주요 타겟이 되었다면 현재는 아이들이 가정 안에 있어도 학교를 다니고 있어도 언제든지 범죄자들의 표적이 될 수 있고, 연령이 어릴수록 이용당하기 쉽습니다. 또한 온라인에는 온갖 정보가 있기 때문에 범죄 수법을 배우거나 자극을 받기도 쉬운 환경에 있습니다. 기회가 된다면 어린 아동과 청소년들이 범죄행위를 하거나 피해를 입는 문제에 대해 심층적으로 다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이현숙위원)				
보도	백신 확보, 접종현황, 향후계획 등에 대한 상세한 보도 필요, 코로나19 백신 현황이 매일update 되어 속도성으로 보도되지만 대부분 “확보”계약” 등으로 표현되어 실제 국내에 들어와서 접종에 투입되는 물량인지, 서류상 확보된 것인지에 대한 엄밀한 의미가 전파되지 못함, 모더나 00만 회분 확보, 백신 충분히 확보 등이 보도되면서도 어느 순간에는 접종간격 2주연장 등 전혀 다른 보도들이 지속되면서 과연 접종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는지에 대한 국민적 불안감도 상존, 차제에 정부가 서류상 계약이 되어있는 물량 확보분과 현재 도입된 물량, 시기적으로 언제 국내 공급되어 접종이 될 수 있는지 등 현황 및 향후 전망, 계획에 대한 일목 요연한 보도가 있었으면 좋겠음, 코로나19 백신접종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백신접종 이상반응이 나타날 경우 개인들이 숙지해야 하는 절차 등을 보도해줄 필요가 있음, 코로나19 보도들이 대부분 신규확진자 발생 현황, 접종예약 현황, 접종현황 등	위원님께서 의견주신 것처럼 백신 확보, 향후계획에 대한 엄밀한 의미를 명확하게 전달하기 어려운게 현실입니다. 방역당국과 시청자 중간에서 팩트를 전달하는 입장에서 때때로 풀리지 않는 답답함을 느낄 때가 많았습니다. 다만 현재 글로벌 코로나 백신 제약사와 백신 계약에 있어서 한계점을 감안할 필요도 있다고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미 아시겠지만 제약사와 코로나 백신 계약은 통상적인 의약품 계약과는 달리 수요자에게 불리한 점이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점은 대체로 계약상의 면책조항을 통해 두드러지게 나타났습니다. 다행히 이제 백신 접종률이 다소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지만 그동안 엄밀한 의미 전달은 어려웠다는 점에 대해선 위원님 의견처럼 아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청자 눈높이에서 확실하고 명쾌한 의미 전달을 위해 방역당국을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을 견지해 시청자를 위한 감시자 역할에 더욱 매진하겠습니다.아울러			

구 분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내용	답변내용	비 고		
			수용	참고	반론
	현상에 대한 피상적 보도에 그치는 경우가 많음, 신속한 현황정보 보도도 필요하지만 시청자들 입장에서 개인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보도하는 것도 중요, 최근 백신접종이 늘어나면서 부작용에 대한 우려 또한 커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 일부 언론을 통해 혈전증에 의한 사망 등 부작용 사례가 전파되면서 불안감은 계속 늘어나고 있음, 커다란 부작용은 아닐지라도 부종, 팔다리 저림, 일부 마비 등 경증의 부작용도 나타나고 있는 바, 이러한 부작용이 나타날 경우 개인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방법, 문의하여 안내받을 수 있는 기관 및 절차 등을 상세하게 보도하면 시청자들에 매우 유익한 정보가 될 것으로 예상됨(유환익위원)	백신 접종률이 높아지면서 백신 이상 반응에 대한 우려도 커지는 게 현실입니다. 질병청은 콜센터를 통해 24시간 전화 문의를 받고 있고, 전문가를 통한 부작용 설명도 방송 통신 신문 SNS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연일 지속해서 전파되고 있지만 정보 수요에 대응하기엔 미흡했던 측면이 있었습니다. 이런 문제점은 코로나 팬데믹 사태에서 백신이 전례없이 빠른 속도로 개발돼 의료계가 모든 부작용에 대해 확실히 짚고 넘어갈 시간이 없었던 현실이 감안되더라도 시청자 입장에선 아쉬운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4분기에는 청소년에 대한 접종도 이뤄질 전망이라 위원님 의견이 더욱 시의 적절하고 중요하다고 생각되며 앞으로도 의료계의 다양한 의견과 최신 논문을 빠르고 정확하게 보도해 이런 궁금증과 우려 해소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를 적기에 전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도	8월6일 “또 거리두기 연장.....위드 코로나 모색할때” 라는 제목으로 7월부터 시작된 최고단계의 거리두기 연장에 따른 국민들의 피로감과 현 방역체계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위드 코로나로 전환을 모색해야 한다는 전문가의 목소리를 전했습니다.코로나와 공존이 불가피하다면 우리도 감염 확산세와 백신공급 상황을 면밀히 따져 특정업종과 영세 자영업자, 소상공인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국민들의 경제 활동을 최대한 보장할 수 있는 K방역 체계 개편을 서둘러야 합니다. 우리나라 공직사회 특성상 방역당국이 방역과 경제적 피해 최소화를 위한 위드 코로나 전략을 선제적으로 마련하고, 발표하기에는 예측치	연합뉴스tv는 위드 코로나 관련 리포트를 9월 들어서만 7꼭지 가량 보도했습니다. 이 중에는 위드 코로나 선결조건이 무엇인지를 짚어주는 리포트도 있었습니다. 방역당국이 위드 코로나 시점을 계속해서 조금씩 늦추려는 움직임이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으며, 관련 보도에 더욱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		

구 분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내용	답변내용	비 고		
			수용	참고	반론
	않는 책임 발생 등을 우려해 힘들 것 입니다. 연합뉴스TV가 우리국민들의 여론과 선진국의 사례를 후속보도로 이어 나간다면 코로나와 공존이 불가 피한 시대, 효율적인 대응정책 마련 에 큰 도움이 될수 있을 것으로 보입 니다.(추문갑위원)				
보도	매일 오전 9시경에 방송되는 '박진형 의 출근길 인터뷰' 코너에서 문화예 술 관련 이슈에 대한 내용이 자주 다 루어져서 고맙다. 이달에도 문화관련 부문의 인터뷰가 4회 방송되어 짧은 시간이지만 해당 전문가와의 심층적 인 인터뷰를 통해 다양한 행사의 기 획의도와 목적 등을 잘 알 수 있었 다. 특히 '국립현대미술관 '이건희 컬 렉션 특별전 (8/17)'과 '국립민속박물 관 파주 개관..수장고 개방 공개(8/7) 인터뷰는 적절한 인터뷰어의 선정과 좋은 질의응답 내용 등으로 많은 정 보를 제공하는 좋은 기획이었다고 평 가한다.(정경모위원)	출근길 인터뷰는 가장 관심이 많은 이슈를 아이টে으로 발굴하기 위해 노 력하고 있습니다. 이건희 컬렉션은 매회 매진이 이어질 만큼 인기 있는 프로그램이다보니 실제로 보고싶어도 볼수 없는 사람들에게 조금이나마 관 람하는 것과 같은 느낌을 살리려고 했습니다. 민속박물관 역시 우리나라 에서 흔하지 않은 수장고 방식으로 만들어진 박물관으로 그 가치가 있기 때문에 알려드리려고 했습니다. 앞으 로도 좋은 아이টে을 발굴하겠습니다.	○		
보도	[단독] 뒤흔쳐나온 거구의 흥기범...방패. 경찰봉으로 사투 (8월 13일 뉴스특보 보도) 사회적으로 이슈가 된 사건에 대한 후속 취재를 통해, 범인이 체포 되는 현장이 생생하게 담긴 CCTV 영 상을 입수한 기자의 취재 노력을 높 이 평가하고 싶습니다. 다만 한 가지 아쉬웠던 점이 있다면 확보된 현장 영상을 보도하는 과정에서 범인이 들 고 있는 흥기의 모습이 그대로 노출 됐는데, 어린아이를 비롯한 온 가족 이 시청할 수 있는 뉴스 프로그램이 라는 점을 감안해 흥기의 구체적인 형태가 드러나지 않도록 모자이크를 진하게 처리하든가, 범인이 경찰에게 흥기를 휘두르거나 테이저건을 맞고 쓰러지는 장면 등 다소 선정적인 부 분은 편집을 통해 수위를 조절했으면	현장성을 높이기 위한 차원이었지만 블러 처리가 충분하지 못했습니다. 향후 유사한 사례를 보도할때에는 각 별히 블러의 수위를 잘 조절하겠습니 다.	○		

구 분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내용	답변내용	비 고		
			수용	참고	반론
	더 좋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참고로 아래 MBC 뉴스 등 일부 언론에서는 연합뉴스TV의 단독보도가 나가기 이틀 전인 11일 비슷한 영상(선명도는 떨어지지만)을 보도한 사실이 있는데 흥기가 명확하게 드러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김세한위원)				
보도	[뉴스리뷰] 6월 27자 오후 7시, [자막 뉴스] 6월 28일 오전 7시'자전거 시험' 생겼다...합격하면 이런 혜택이~~ 서울시에서 이번 달부터 자전거 운전 능력 인증제를 처음 도입했다는 내용의 뉴스였습니다. 자동차 면허처럼 필기시험 후 기능과 주행시험을 보았다고 합니다. 요즘 코로나로 자전거 인구가 많아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더욱이 반가운 소식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전거도 보행자 입장에서는 차입니다. 자전거의 올바른 정보와 안전하게 탈 수 있도록 연합뉴스TV에서 많은 홍보를 해주었으면 합니다.(천경숙위원)	일상생활에 유용한 정보를 시청자들에게 보다 많이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